



제목	중세 그리스도교의 이슬람 대응: 이슬람 문명권, 비잔티움, 라틴 그리스도교 세계의 비교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교회사학회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5집)
발행일	2016. 12. 31.
저자	서원모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7-67
ISBN 또는 ISSN	1598-5229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이슬람교에 대한 중세 기독교의 대응을 문헌사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저자는 중세 기독교를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 비잔티움 기독교, 라틴 기독교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역에서 이슬람교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비잔티움 기독교인과 라틴 기독교인은 왕래와 교역의 제한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반면,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인은 이슬람교의 경전과 신학과 종교생활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매일 대면하는 이슬람의 종교적 도전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했다고 한다.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권역에 비해 이슬람 신앙과 관행을 온건하게 대응했으며,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했고, 그리스 학문의 아랍어 번역 사업과 철학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문명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면서 생존과 영토 회복을 위한 전쟁을 하는 등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기독교는 이슬람교를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였다. 14세기가 되어서야 이슬람교의 종교적 성격을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한 덕분에 이슬람 세계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라틴 세계의 기독교는, 이슬람 세계의 기독교나 비잔티움 기독교와 달리, 독특하게도 무슬림을 대상으로 개종과 선교를 시도하였다. 10세기까지는 이슬람교에 대해 무관심했으나, 10세기 말부터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와 이성적 논증과 변증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3세기에 형성된 탁발수도회는 무슬림 선교를 주도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보와 논증에 기초한 상호토론이라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새로운 유형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